

석유제품 소비량 4년만에 감소

2008년 7억6000만배럴로 4.3% 줄어 ... 휘발유는 사재기로 증가

2008년 국내 석유제품 소비가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에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 초고유가에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월29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008년 국내 석유제품 소비량은 7억6072만4000배럴로 잠정 집계돼 2007년(7억9494만5000배럴)보다 4.3% 가량 줄어들었다.

2004년 7억5232만9000배럴로 전년대비 1000만배럴 이상 감소한 뒤 2005-07년에는 3년 연속 상승곡선을 그려왔으나 2008년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내 석유제품 소비가 감소한 것은 전체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단일 품목으로 가장 소비가 많은 나프타(Naphtha)는 2008년 소비량이 3억1145만5000배럴로, 2007년(3억1685만8000배럴)에 비해 5400만배럴 이상 급감했고, 2007년 8902만8000배럴이었던 벙커C유도 6676만6000배럴에 그쳤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상반기 고유가와 하반기 경기침체의 영향이 산업용 석유제품 수요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휘발유 소비량은 6293만7000배럴로 전년대비 0.7% 늘어나 200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12월에는 628만2000배럴로 전년동월대비 20.9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연말에 발생하는 가수요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실제 소비량이 늘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1/29>